

9장. 공동체가 축복하는 혼인(4:11-17)

I. 오늘의 포인트

1. 보아스와 룯의 결혼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반응을 알아본다.
2. 하나님께서 룯에게 자녀를 주셨다고 강조하는 이유를 알아본다.
3. 그 자녀가 누구인지를 알아본다..

II. 본 론

A. 장로들과 공동체가 축복하는 혼인

- 1) 보아스가 혼인하여 대를 잇게 하겠다는 선언에 대한 공동체의 인정

: 원로들과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이 결혼의 증인임을 공증함

- 2) 축복의 말속에 등장하는 특별한 내용

: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탄생한 라헬과 레아의 역할에 방불할 것을 언급함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룯4:11)

: 룯은 가족을 뛰어 넘어 더 큰 무대인 하나님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임

: ‘에브랏’에서 유명한 자가 될 것을 언급함으로 다윗왕을 후손으로 두는 상황으로 실현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삼상17:12)

: 이방인으로서의 과거의 역사를 언급하며 현재의 룯을 축복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룯4:12)

B. 살아갈 길이 전혀 없었던 가족에게 주어진 최고의 헤세드 이야기

- 1) 사람들의 기도에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응답

: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복을 비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으로 임신케 하심.

‘이에 보아스가 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므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룯4:13)

: 룯은 예전에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점을 사실과 비교가 되고 있다.

- : 이스라엘 땅에 기근에서 풍년으로 변했듯이 룯이 무자식에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비옥한 룯으로 만들어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
- : 양식 제공으로부터 출발해서 상속자인 아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극대화
- : 룯의 임신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다.

2) 나오미의 잃어 버렸던 개인과 가문의 축복의 놀라운 회복과 그 이상의 축복

- : 룯이 낳은 아이를 나오미가 품에 안음으로서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되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룯4:14)

- : 아들 일곱보다 더 나은 며느리라고 룯의 위치를 세워주고 있다.
‘...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룯4:15)

- : 나오미의 노년의 보호자로 이 아이를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만들어 주셨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룯4:14-15)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룯4:16)

- : 보아스와 룯 사이에 오벳의 출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나오미의 삶에 임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나오미와 함께 기뻐한다.

3)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는 모습

- :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를 빈손이라고 묘사했지만** 스스로의 했던 말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자신의 말이 무색해졌다.
하나님은 룯을 옆에 두시고, 룯의 결혼을 통해 풍성하게 채워 주셨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룯1:21)

- :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위하여 축복하면서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바란다는 **예전의 자신의 기도를 떠 올리게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룯1:9)

- : 오벳을 통해 나오미를 회복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곤경에 처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C. 룯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벧을 낳음

- 1) 나오미가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누구냐?
: 바로 다윗왕의 선조이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벧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룯4:17)
- 2) 어둡고 답답했던 사사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방향이다.
: 참된 왕을 필요로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였다.
- 3) 오벧의 출생은 룯기 이야기의 절정에 해당한다.
: 미래의 희망의 근거인 자식도 하나님을 통하여 오고 있다.
- 4) 가족사를 뛰어 넘는 한 나라의 역사
: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족의 고통과 운명을 다루고 있던 룯기가 새롭게 더 넓은 차원으로 나아감

III. 적 용

1. 밭의 기근과 생명의 기근이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풍년과 생명의 탄생으로 바꾸어 놓으신다. 오늘 우리의 기근의 삶속에서 어떻게 풍요로 바꾸어 놓을수 있을까?
2. 나오미가 스스로 했던 말들이 부끄러운 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우리에게 없는가?
3. 우리 개인 역사가 어떻게 한 개인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을까?